

최초의 근대적 페미니스트  
올랭프 드 구주

여성으로 태어나 제 나라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면 어디까지 가야 할까? 팡테옹프랑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영웅과 위인들의 유해를 모신 곳에 들어가려면? 생각의 진보를 체현하고, 재능을 구현하려면, 그리고 동족과 후대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대담한 행위도, 어떤 무훈도, 어떤 웅변이나 문학적 재능도, 어떤 관대하고 새로운 생각도 조국의 인정을 받아 프랑스 역사 속에 들어가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고대 적부터 들어왔다. 기원전 5세기에 피타고라스가 이미 이렇게 쓰지 않았는가. “질서와 빛과 남자를

창조한 선한 원칙이 있다. 그리고 혼돈과 암흑과 여자를 창조한 악한 원칙이 있다”고.

“여성은 천성이 습하고 흡수성이며 차가운 반면, 남성은 건조하고 따뜻하다. 여성의 배아는 남성의 배아보다 늦게 단단해지고 분화된다. 그 이유는 여성의 종자가 남성의 것보다 약하고 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사전이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의사”라고 말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2500년 뒤에도 이 일반화된 생각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아프리카인과 유럽인의 관계와 같다”고 1875년 인류학자 폴 토피나르가 단호히 선언했고, 귀스타브 르봉<sup>1841~1931</sup>, 프랑스의 사회 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이 그 뒤를 이어 받아 말했다. “남자들의 평균을 웃도는 여자들이 존재한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괴물의 탄생만큼이나 예외적인 경우들이다.”

한 세기가 지나서도 극작가이자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인 에르네스트 르구베가 한 말은 눈곱만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안심하세요. 저는 여자 국회의원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자 의사가 혐오스럽고, 여자 공증인은 가소롭고, 여자 변호사라면 끔찍합니다. 여자의 으뜸이자 궁극적인 임무는 아이를 낳아 먹이고 기르는 겁니다.” 익히 알려진 이 후렴은 수 세기

를 건너온 것이다!

여성해방에 대한 남성들의 기계적인 반대를 분석한 최초의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였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여성해방에 남성이 반대해온 역사가 이 해방의 역사보다 더 말해주는 바가 많다.” 실제로 시민이 되게 해달라는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남성 사상가나 정치인은 드물다. 프랑스혁명 때 권리의 평등을 정치체제의 유일한 토대로 주장한 남성은 거의 콩도르세<sup>1743~1794</sup>,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한 명뿐이었다. “왜 임신과 일시적인 월경에 노출된 존재들은 겨울마다 콧물을 흘리거나 쉽게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한테서는 박탈할 상상을 결코 한 적 없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까?”

그 후 콩도르세는 로베스피에르의 명으로 감옥에 갇히자 곧 잊혔고, 자살함으로써 단두대를 면했다. 반면에 탈레랑<sup>1754~1838</sup>, 프랑스의 정치가는 대중 여론의 편에 섰으로써 온갖 체제를 겪고도 살아남았다. “여자들의 행복은 정치적 권리나 직무의 행사를 바라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말에 누구도 충격받지 않았다!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안다. 몇 년 뒤, 여성 혐오의 진정한 걸작인 나폴레옹 민법에 여성의 종속성과 열등성이 정식으로 등록된다. 1789년 혁명의 시나리오가 1848년에 재현된다. 그리고 제2제정은 여성 자립의 희미한 흔적마저 깡그리 질식시킨다. 국민공회<sup>1792.9~1795.10</sup>, 프랑스 제1공화정 선포와 더

불어 시작된 혁명 최종 단계의 의회가 “어린아이, 정신이상자, 여성, 명예형의 유죄 선고를 받은 자들”은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미 퍼뜨려놓아 1848년 4월에는 여성들의 국회 발언을 금지하고 그런 여성들은 “정치적 범죄로” 단죄하게 해주었다. 그 결과, “이 낯선 존재 여성”은 우리 역사에 커다란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 유일한 살리카 법전이 프랑스 왕좌 계승에서 여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네들의 아들이 미성년자일 동안만 섭정攝政이 될 수 있었다. 결국 프랑스 역사에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에 비견할 만한 역할을 한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성녀거나 여왕이거나 총애받는 애첩이거나 화류계 여자거나, 아니면 사회면 기사나 유명한 사극의 여주인공이 아닌 이상 전기 작가들은 여성을 거들떠보지 않았다.<sup>1</sup> 여성들의 영웅적 행위나 지성, 재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역사책이나 학교 교재에는 적절한 분량으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지워졌다. 지나치게 체제전복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집을 부린 여자들은 화형장이나 도형장, 또는 단두대나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자신들에게 지정된 전통적인 자리에서 벗어나 공적 역할을 해보려고 시도한 모든 여성들은 대부

1 올랭프 드 구주에게 할애된 첫 번째 전기는 올리비에 블랑이 쓴 것으로, 1981년 시로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분의 경우 영예도 얻지 못했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다.

이 여성들이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그들이 우리의 사진에 하나의 성으로, 심지어 하나의 이름으로 축소돼버린 건 그네들의 중요도가 하찮아서가 아니라 오직 여자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반항녀들, 이 괴짜들, 또는 이 예술가들이 정숙한 여자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의 어린 여자들에게 모범이 될 위험이 없도록 역사가들, 연대기 작가들 또는 철학자들은 아주 확실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을 역사의 지하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의 집단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질식당한 이 운명들, 침묵으로 축소된 이 목소리들, 알려지지 않은 또는 죽은 채 태어난 이 모험들, 낙태당한 이 재능들이 마침내 오늘날 어둠 속에서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여주인공들이 영광의 광테옹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 여성들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나 누구보다 망각된 이가 올랭프 드 구주다.

왜냐하면 그녀가 프랑스에서 1791년에 모든 차원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제시한 “여성 인권 선언”을 작성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주의(이즘)”라는 말이 존재하기도 한참 전에, 성차별주의가 인종차별주의의 한 변종임을 이해하고,

여성 박해와 흑인 노예제도에 동시에 맞서 일어선 최초의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용감하게도 성적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혼과 동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가부장권을 동시에 공격하지 않으면 시민권 정복도 한날미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고 미혼모와 사생아의 권리를 옹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이상理想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793년에 그녀의 머리를 자른 공포정치의 혁명가들은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그녀의 잘린 머리와 더불어 그녀의 여성해방 운동 이념들, 종종 예언적인 성격을 띠었던 그녀의 이상들도 함께 땅에 떨어져 다른 사람들의 것처럼 전가되고, 수많은 그녀의 글들, 연극작품, 회고록, 정치 선언문, 소설들은 도서관의 지옥에 묻히거나 파괴되어 두 세기 동안 누구도 출간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모니크 피에트르<sup>2</sup>가 고안해낸 문구에 따르면 18세기 말의 많은 여성들이 “부채질을 하다가 단두대에 올랐”지만 올랭프 드 구주처럼 통찰력과 열정을 동시에 갖추고 자기 원칙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소설 같은 삶을 살았고, 대담한 정치적 행동을 했고, 시대

2 『시대를 통해 본 여성의 조건』, 프랑스 앙피르 출판사, 1975.

를 대단히 앞선 생각을 했지만 그녀는 역사 교과서에 기껏해야 한두 줄 정도 언급될 권리밖에 갖지 못했고, 그녀의 죽음에 바쳐진 추도사는 조소나 악의 어린 몇 마디로 축소되었다. 이 “무모한 여자”, 이 “정신 불안정한 여자”, 이 “용감한 미치광이”<sup>3</sup>, 이 “화류계 여자”<sup>4</sup>, 이 “남프랑스의 보바리”<sup>5</sup>, 이 “정신나간 주정뱅이”, 이 “부도덕한 괴물”은 결국 조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던 모든 여성 히스테리 환자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온갖 전통적인 여성혐오의 환상들을 한 몸에 구현한 올랭프 드 구주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클로드 망스롱은 거침없이 말한다. “그녀는 우리 역사의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혁명가였다.”

어쩌면 그녀의 눈부신 예명이 그녀를 완전한 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했는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혁명적 공화주의자 협회의 일원이었으며 단두대를 겨우 모면한 클레르 라콩브나, 미슐레<sup>1798~1874</sup>, 프랑스의 역사가가 “고상한 네덜란드 여자”라는 별명을 붙였던 에타 팜 더엘더스 같은 이름은 상상력을 덜 자극한다. 더구나 올랭프 드 구주라는 예명은 그녀의 첫 문학적 창작물이기도 했다. 그녀가 1748년에 공식적

3 에드몽과 쥘 드 공쿠르, 『일기』.

4 1908년 일간지 〈질 블라스〉를 참조할 것.

5 장 라보, 『프랑스 케미니즘의 역사』, 스톡, 1977.

으로는 몽토방<sup>Montauban</sup>의 푸줏간 주인인 피에르 구즈와 그의 아내 안-올랭프 무이세의 딸로 아주 소박하게 마리 구주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문인인 르 프랑 드 풍피냥 후작의 혼외 딸이었다.

그녀의 소설 같은 출생, 교육이라곤 받지 못한 가난한 유년기, 고달팠던 청춘기에 대해 우리는 그녀가 훗날 출간하게 될 자전적 소설 『드 발몽 부인의 회고록<sup>Mémoire de Mme Valmont</sup>』 덕에 안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나의 출생은 참으로 기이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중 앞에 고백한다. (...) 나는 역사적 사건들이 운명을 바꿔놓은,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가문 출신이다. 나의 어머니는 하늘이 자식을 여럿 허락해준 드 플로쿠르 후작과 대단히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의 딸이었다. (...) 후작의 큰아들인 장-자크는 나의 어머니를 무심하게 보지 않았다. 나이와 취향이 둘 사이에 호감을 형성했고, 그 감정은 곧 위험하게 발전했다. 그의 부모와 내 어머니의 부모는 두 사람의 열정을 알아차리고서 당장 갈라놓을 방법을 찾아냈다. (...) 나의 어머니는 결혼했다. 장-자크는 파리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극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예전에 사랑했으며 여전히 흘러 있는, 결혼해서 이미 여러 명의 자식을 둔 여자를 다시 만났다. 내가 진실을 전하면서 수줍음과 선

입견과 법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마치 부름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가 돌아온 바로 그날 나는 세상에 태어났고, 온 마을 사람이 내 출생을 그가 나는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장-자크는 체면을 포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딸이라 부를 정도로 내게 애정을 보였다. 실제로 진실을 감추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놀랄 정도로 닮은 모습이 너무도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내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서 나를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허락을 얻어내려고 온갖 수단을 사용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제안을 매번 거절했고,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을 야기했으며, 나는 그 희생자였다.

그가 자신의 영지로 떠났을 때 나는 겨우 여섯 살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웬 금융업자의 미망인과 결혼했다. 이 결혼으로 비롯한 괴로움 속에서 나의 아버지는 나를 잊었다.”

그녀가 말하는 이 아버지는 법관이었고 그 시절 어느 정도 이름이 난 작가였는데, 그녀는 그가 “불후의 재능”을 가진 것처럼 과대평가했다(그녀는 언제나 그를 우상화했다). 장-자크 르프랑 드 풍피냥은 독실하고 강직했으며, 특권의 수호자여서 볼테르가 좋아하는 놀림감이었다. 틀림없이 그의 영광을 보증해줄 증서 같은 인물이었다!

몽토방에서 식사관리인이었다가 연회용 파견 요리사가 된

루이-이브 오브리외와 열여섯 살에 결혼한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남편을 “부자도 아니며 집안도 좋지 않고 그녀가 조금도 사랑하지 않은 나이 많은 남자”라고 말한다. 열일곱 살에 아들 하나를 둔 엄마가 된 그녀는 몇 달 뒤 과부가 되면서 안도감 속에 자유를 되찾았고, 그 후 결코 이 자유를 잃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부자 독신자, 자크 비에트릭스 드 로지에르에게 오래도록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곧 그녀를 그녀의 아들과 함께 파리로 데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재산도 없었지만 그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는 건 거부했다. 그녀가 여성에 부과되는 계율을 어긴 첫 번째 위반이었다! 생시몽주의공상적 사회주의자들보다 50년 전에, 시몬 드 보부아르보다 150년 전에 그녀는 “신뢰와 사랑의 무덤”인 결혼을 거부했고, 그녀가 “자연적 이끌림”이라고 부른 것에 호감을 표명했다.

그 시절엔 그녀처럼 젊고 예쁘고 야심 많은 여자에게 결혼이나 매춘 이외의 다른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결혼을 거부한 올랭프 드 구주에게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몸 파는 여자라는 평판을 서둘러 들썩웠고, 파리에서 동시대를 사는 시민들 마음에 쏙 드는 배려를 하기로 유명한 화류계 여자로밖에 볼 수 없다는 척했다.

그녀가 관습을 거스른 두 번째 위반은 오브리 부인이라 불릴 것 거부한 것이다. 이 이름이 나쁜 기억을 떠올렸기에 그녀

는 다른 이름을 짓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 올랭프를 택한다. “어딘지 천상적인 데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자기 성인 ‘구즈Gouze’를 ‘구주Gouges’로 살짝 변형해 덧붙인다. 어쨌든 그녀는 철자법을 몰랐다. 읽는 법도 쓰는 법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의 결혼계약서를 보면 그녀가 겨우 서명 정도만 할 줄 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진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시대 여성들 대부분이 사실상 문맹이었으니까.

기이하게도 그녀가 귀족의 성 앞에 붙는 소사 드<sup>de</sup>를 선택했다는 점은 다른 여성 혁명가, 안-조제프 테르바뉴, 통칭 테루아뉴 드 메리쿠르<sup>1762~1817</sup>와 비교된다. 이 비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사망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랭프 드 구주는 단두대에서, 테루아뉴 드 메리쿠르는 대중 앞에서 볼기를 얻어맞은 뒤로 마지막까지 실성한 채 살페트리에르 정신병원에서 죽는다. 두 사람 모두 “혁명기 남성들의(콩도르세만 예외였다) 여성 혐오와 여성들의 전투적인 활동 앞에서 그들이 보인 본능적인 두려움을 증언”<sup>6</sup>했다.

파리에서 그녀는 소외가 무엇인지, 오늘날 같으면 한계상황이라 불렀을 것이 무엇인지 아주 빨리 터득했다. 인정받

6 마이테 알비스튀르와 다니엘 아르모가트가 쓴 탁월한 저서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프랑스 페미니즘의 역사』(에디시옹 데 팜, 1977년 간행)를 참조할 것.

지 못하는 서출 여자에다 문맹이고, 게다가 오크 지방 사투리까지 썼으며, 똑똑하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했으니…… 그 시대 여론의 빈축을 살 자격이 차고 넘쳤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서출이라는 점은 그녀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문인의 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대단히 신중하게도 1784년 르 프랑 드 풍피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고록을 출간했으며 그녀의 아버지가 당대의 흔한 위선적 태도로 회피한 친자관계를 대중 앞에 주장했다.

“부인, 당신의 편지가 과거에 대한 나의 불안과 고통을 일깨웠습니다. (…) 세월이, 나의 나약함이, 종교가 너무도 죄 많은 젊은 날의 오류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대상을 내 눈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내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당신이 내게 낯설지 않다는 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버지의 자격을 주장할 권리가 당신에겐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결혼 서약 아래 합법적인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능이 당신 내면에서 말을 하고, 어릴 적 당신을 내가 경솔하게도 쓰다듬었던 일과 당신 어머니의 고백이 내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게 사실 일지라도 당신을 존재하게 만든 사람들의 운명에 나처럼 한탄하세요. 당신이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신께서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